‘전라도 방문의 해’ 대표 관광지 100곳 선정

광주 15곳·전남 48곳·전북 37곳 … 시군별 2~3곳 뽑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이 공개 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순천만국가정원·전주 한옥마을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 광주 맥문동숲길·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고흥 연홍도 등 다소 생소한 곳도 포함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광주와 전남·북 3개 시·도는 2018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8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37곳, 광주 15곳 등이다. 생태·역사·문화·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곳으로, 기초단체별로 2~3곳씩 골고루 선정했다.

<표 참조>

선정에 앞서 3개 시·도는 지난 9월 기초단체에서 170곳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시·도 실무진 회의를 거쳐 최종 100선을 확정했다.

광주는 예술의거리&대인예술야시장, 전통문화관&의제미술관, 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 국립5·18민주묘지, 광주맥문동숲길, 월봉서원 등 15곳이다.

전남은 목포근대역사거리, 여수 금오도 비렁길, 순천 낙안읍성, 광양 매화마을, 담양 소쇄원&가사문학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고흥 연홍도, 화순 운주사, 강진 다산초당&백련사, 해남 대흥사&윤선도유적지,영광 백수해안도로, 장성 축령산편백나무숲, 진도 조도군도&관매8경, 신안 증도&임자도 등 48개소다.

전북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익산 백제왕도 왕궁리유적, 정읍 솔티 달빛생태숲, 김제 벽골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무주 반디랜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등 37곳이다.

3개 시군은 앞으로 힐링, 역사문화 등 테마별 명품 여행코스를 연계 개발할 계획이다. 또 100선을 활용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동영상 등 홍보물도 제작·배포해 방문객들의 호기심과 다시 찾고 싶은 동기를 유발한다는 전략이다.

곽부영 전남도 전라도방문의해TF 팀장은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에 이어 전라도 섬관광 50선과 힐링관광지 50선, 소비자가 뽑은 전라도 여행지 선정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라도 대표관광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거리&대인예술야시장, 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 전통문화관&의제미술관, 5·18자유공원&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폴리, 양림동역사문화마을&팽귄마을, 국립 5·18민주묘지, 광주비엔날레, 국립광주박물관&국립광주과학관, 광주맥문동숲길, 광주호호수생태원, 우치공원&패밀리랜드, 1913송정역시장, 월봉서원
전남	목포-갓바위 문화타운, 근대역사거리/여수-금오도 비렁길, 오동도·엑스포해양공원, 향일암/순천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송광사·선암사/나주-금성관, 국립나주박물관·반남고분군/광양-매화마을, 백운산 자연휴양림/담양-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콰이아, 소쇄원·가사문학관/곡성-섬진강 기차마을, 태안사/구례-화엄사·사성암, 지리산 노고단·산수유마을/고흥-소록도, 나로우주센터, 연홍도/보성-녹차밭, 제암산 휴양림/화순-운주사, 고인돌 유적지/장흥-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토요시장/강진-가우도, 다산초당·백련사/해남-대흥사·윤선도유적지, 땅끝관광지·전망대/영암-월출산 국립공원, 구림한옥마을·왕인박사유적지/무안-회산백련지, 생태갯벌센터, 남도소리울림터(토요상설공원)/함평-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양서파충류전시관/영광-백수해안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불갑사/장성- 축령산 편백나무 숲, 백양사/완도-청산도, 완도타워/진도-운림산방, 조도군도·관매8경/신안-홍도·비금·도초도, 증도·임자도
전북	전주-한옥마을, 덕진공원, 국립무형유산원 / 군산-시간여행마을(근대역사박물관), 고군산군도, 청암산 에코라운지 / 익산-백제 왕도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 정읍-내장산국립공원, 솔티 달빛 생태숲 / 남원-광한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 김제-벽골제(벽골제 생태농경원), 금산사 / 완주-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심례문화예술촌, 대둔산 도립공원 / 진안-마이산 도립공원(지오파크), 홍삼스파, 데미샘 자연휴양림 / 무주-태권도원, 반디랜드, 구천동 33경과 자연생태원 / 장수-방화동가족휴가촌, 승마레저파크, 금강첫물 뜬봉샘 / 임실-임실치즈 테마파크, 성수산(성수 왕의 숲) / 순창-강천산 군립공원,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섬진강 장군목 / 고창-운곡 람사르습지,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 부안-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사

막바지 대봉감 수확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어닥친 19일 오후 영암 금정면 남송마을 주민들이 막바지 대봉감을 수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식품단지에 1000억 규모 친환경식품 공장 착공

포프리, 8만㎡ 부지 제빵·커피 등

전남 화순군 화순식품단지에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식품 가공공장이 들어선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주)포프리(대표 김회수)가 지난 17일 화순군 능주면 화순식품단지에서 친환경식품 가공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오는 2024년까지 화순식품단지 8만4257㎡ 부지에 단계별로 제빵 등 식품가공공장과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휘트니스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00억원 규모다.

1단계는 2019년 말까지 245억원을 투자해 두부, 계란, 콩나물, 쌀 등 가공공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300억원을 투자해 제빵, 커피, 푸딩 등 가공공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455억원을 투자해 영화관, 수영장, 미술관,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로컬푸드 판매장 등을 2024년까지 갖추게 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민 등 560여명의 새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와 여가·관광이 어우러진 6차 산업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포프리는 지난 2000년 광주시에서 설립돼 광주와 보성 등 3개 사업장과 14개 영업소를 가진 전문 친환경식품 가공기업이다. 생산 제품은 전국 19만 가족회원에게 100% 회원제로 판매되고 있으며, 24시간 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1일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매출 규모가 416억원이며 화순공장이 완공되면 본사와 공장을 모두 화순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 최권일기자 cki@

청탁금지법 ‘3·5·10’ 규정 변경 의견수렴

이총리 “설 대목엔 실감토록”… 최종안 관심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까지는 ‘3·5·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국회의원별로 의견이 제각각 나뉘어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에 관심이 쏠린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이 농축수산물을 쓰기에 식사비 상한액 조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 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다.

지난 17일 권익위와 비공개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1차 농축수산물만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2차 가공품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면 굴비·홍삼·햄 등 가공품의 종류가 많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등 의견이 분분했다.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되, 영구적으로 올리지 말고 2년만 일몰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는 10만원을 그대로 두되,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청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28일께 대국민보고대회를 예상했으나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광주 섬유업체 찾아 애로 청취

전남방직·일신방직 방문

국민의당이 광주지역 섬유업체를 찾았다. 19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원내대표단이 전남방직·일신방직 등 광주지역 섬유업체를 방문해 노사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장병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조승유 광산구의회 의장과 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업체에서는 전남방직 조규옥 회장·김옥진 평동공장장·안순환 노조위원장장과 일신방직 김정수 사장·김정길 공장장·김종태 노조위원장·김영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기술지원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인건비 증가·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섬유산업 지원 예산 증액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을 약속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흥우주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 나로센터 개발 탄력

전남도는 ‘고흥 우주 랜드’사업 부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흥 우주랜드 추진 사업부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용지 매입 융자, 임대료 감면,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 등 지원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배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 우주랜드는 국비 39억원, 지방비 127억원, 민간자본 394억원 등 총사업비 560억 원을 들여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원 15만9612㎡에 조성된다.

132실 규모의 호텔과 23동 46가구 규모 자연친화적 우주 빌리지, 테마형 상가, 휴양 문화시설 등이 생길 예정이다.

고흥군과 우주개발(주)이 지난 2015년 협약을 통해 추진해 현재 기반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민간부문 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해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